

북한군 공작 폭동 왜곡에 발포·헬기 사격 부정 용서받지 못한 전두환의 뻔한 거짓말들

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 무슨 내용 담겼나

‘전두환 회고록’에 적힌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 등을 놓고 벌어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父子)와 5월 관련단체 등의 대립에 법원이 5월 영령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의 쟁점은 저자가 자신의 회고록에 담은 5·18과 관련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5월 관련 단체와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월 5월 관련단체 등(채권자)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저자가 회고록인 ‘제1권 혼돈의 시대’(604쪽)에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은 없었고, 5·18은 북한군이 공작한 폭동이었다’고 묘사한 부분 등은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하하는 등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조정함으로써 5월 관련 단체와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군부대의 폭력진압은 없었다는 점과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만 쓴 사탄이라고 한 점 등 채권자(5월 관련단체 등)들이 지정한 회고록 내용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선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공고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은 북한군이 공작한 폭동으로 저자인 자신과는 무관하며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을 내린 만 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저자인 전두환에 대해 5·18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확정을 내린 것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5월 관련 단체 등이 이번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지정한 부분은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 광주사태

북 조비오 신부 사탄 묘사 ‘광주사태 씻김굿 제물’ 등 반성없는 역사왜곡 33개나

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심자가 내게 지게 되었다’(26~27쪽),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27쪽),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379쪽) 등이다.

또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 집결해 수백대의 차량을 끌고나간 사람들의 정체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406쪽), ‘5·18사태 때에는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997년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1980년 5월 17일 광주에서는 비상계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전두환 등 군부세력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시위대를 난폭하게 진압했다”고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모 집지와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일구어낸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검정서, 군인·조비오 신부 등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5·18 당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위야 가라” 계곡 물놀이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이 38.6도를 기록한 6일 영암 월출산 기암랜드를 찾은 피서객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역대급 폭염에 전남 노인 사망·실종 잇따라

최고 38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 속에 전남에서 노인들이 사망하고 실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께 강진군 강진읍의 한 중앙비업체 주차장 주변 웅덩이에서 A(73)씨가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별더위에 길을 나섰다가 지반이 약화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 55분께 진도군 의신면의 한 고추밭에서 B(91)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B할머니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할머니가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16분께에도 진도군 조도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C(78)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폭염이 가승을 부리면서 마을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방문한 주인이 물이 담긴 대형 고무다야 안에서 숨져 있는 C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또 해남군 해남읍에서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산책하러 나간 D(84)할머니가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주변 야산 등지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D씨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진도=남철희기자 choul@/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죽음 부른 귀어 사촌의 갈등

사촌동생 살해 후 투신

전남 유명 관광지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던 귀어인(歸漁人) 사이에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귀어 전까지 사이가 좋은 사촌형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20분께 강진군에 있는 한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한 이씨(66)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신의 몸에선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염산냄새 등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렁다리에 설치된 CCTV에는 숨진 이씨의 사촌형인 임모(66)씨는 김씨를 흉기로 찌른 뒤 20m 아래의 바다로 투신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헬기 등

을 동원해 임씨를 찾고 있으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평소 출렁다리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자주 다녔고, 임씨가 평소 염산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로 미뤄 임씨가 사촌 동생인 김씨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김씨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임씨의 가계는 700여m 거리에 있으며, 동생 김씨는 지난 2016년 초 광주에서 강진으로 귀어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올 2월 전주에 거주하는 사촌형 김씨의 귀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집안 살림을 부순 임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합의를 요구받았으나 임씨의 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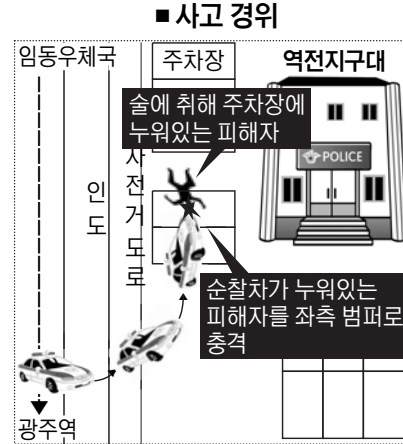
술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있었다 순찰차에 치여 부상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던 순찰차에 치였다.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유모(56)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었다가 김모(34) 순경이 몰던 소나타 순찰차 앞범퍼에 치였다. 이 사고로 유씨는 턱 등을 다쳐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건물 앞 주차장 주차선 내에 가로 방향으로 누워있었으며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오던 김 순경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유씨는 이날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북구 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역전지구대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씨는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지구대 직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순경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야간 당직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울까지 갔는데 택시요금 안내자... 승객 태우고 광주 돌아와 신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태우고 갔던 50대 택시기사가 요금 수십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손님과 다툰 끝에 다시 광주로 태우고 돌아와 경찰에 신고.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모(52)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어야 하니 서울 여의도 모 방송국까지 가자”는 승객 명모(48)씨를 태우고 3시간 30분 만에 서울까지 갔

는데, 명씨가 택시비 4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자 다시 광주역으로 데려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간 승객도 문제지만 굳이 광주까지 손님을 다시 태우고 와서 신고한 택시기사도 대단하다”면서 “광주로 오는 과정에서 다툰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광주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됐을텐데...”라며 한 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교통사고 내고 아들에게 허위자백 시킨 공무원 벌금형

법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아들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한 공무원 아버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밤 10시 40분께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났다. A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불별더위에 길을 나섰다가 지반이 약화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 55분께 진도군 의신면의 한 고추밭에서 B(91)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B할머니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할머니가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온열

/광양=김대수기자 kds@/광양=김대수기자 kds@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

직매 010-7384-7800

수기동 상가(매매·임대)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

1억 6천 → 9천8백 (용 5천)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추천 (기타)

- 북구 신안동 (10층 중 4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6층
토 6평, 건 24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첨단 오피스텔 (10층 중 7층)
토 2평, 건 11.7평
▶ 감정가 9천2백 → 최저가 6천4백
- 북구 신원동 (8층 중 5층상가)
토 48평, 건 176평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
토 26평, 건 60평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
- 상무지구 4층 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이상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억9천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062-527-7600

경매교육

- 기초실전문
 -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 ▶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 실전문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 프리특별반

▶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중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전시빌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2699-5300
062-382-5500